日就月長 서른일곱번째 맞는 齒協綜合學術大會 盛了

「나의 齒牙를 무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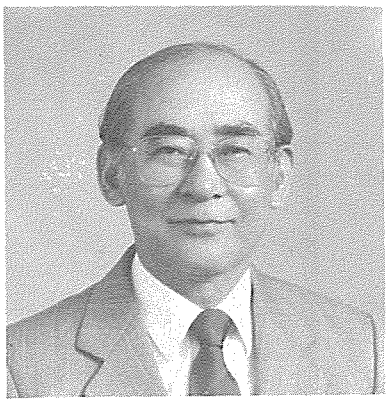
DENTAL NEWS

3,406名 齒科醫師 學術行事 大壯征

親愛하는 齒科醫療人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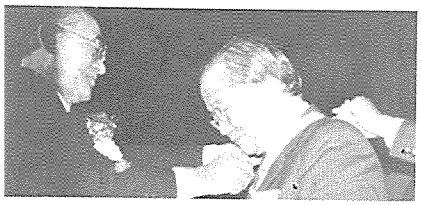
國民口腔保健이라는 大命題 아래 주어진 우리의 役割은 醫療保險實施와 더불어 더욱 重且大해 가고 있으며, 社會는 우리 醫療人에게 高度의 醫學的 技術向上을 要求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때에 綜合學術大會에 參席하시어 學問과 診療經驗을 나누고 友情을 敦篤히 한다는 것은 큰 뜻에서 齒科家族의 團合을 뜻하는 것이며 醫術의 理念을 具現하고 齒科疾患의 多元化에 對處하기 爲한 敎育의 大會場이 될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李永玉 치협회장의 人事말 中에서〉



登錄人員 3,406名이 참가한 가운데 開會式이 進行되고 있다

學術大賞 尹仲鎬 延世大齒大 學長



제12회 대한치과의사협회 大賞 학술에 尹仲鎬 연세대 치대학장이 선정되 지난 25일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에서 패 및 순금메달과 부상금 2백만원을 상했다.

尹仲鎬학장은 올해 51세(34년생) 로 남부여 출신인데 57년 서울치대를 졸 , 그해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을 줄 연세대에 재직하면서 75년 연세치대 원장, 80년 대한구강외과학회장 등을 임했고, 64년 미국의 펜실베니아대학 서 구강외과학을 수학하는등 여러차 외국유학을 통해 구강외과학회 발전 크게 기여했는가 하면 네차례에 걸 WHO가 주최하는 워크샵이나 특별 의·학장회의 등에 참가, 치의학교육 개발과 국제교류에 심혈을 기울려왔 尹학장은 그동안 40여편의 학술논문 발표했다.

齒科醫療文化賞 曺廣鉉 論說委員

제 7 회 齒科醫療文化賞에 曺廣鉉치의 신보 논설위원이 선정, 25일 종합학술 대회 개회식장에서 상패와 순금메달을 수상했다.

齒協의 기관지「치의신보」의 창간이념을 드높이기 위해 77년에 제정된 치과의료문화상제도는 치과계의 언론창달과 치의학의 개발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국회원중 공보위원회가 수상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1명을 최종선정케 된다.

이날 치과의료문화상을 수상한 曺廣鉉씨는 서울치대 제12회 출신(58년 졸)으로 71년 齒協공보위원, 齒協총무위원 84년 치의신보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투고와 기사제공으로 기관지활성화에 현신했다. 현재는「齒界慢評」이 회원의 절찬리에 연재되고 있다.

新人學術賞 金明鎭 서울大 敎授

제 6 회 新人齒學학술상에 金明鎭 서울치대교수가 선정, 수상했다.

장래성 있는 젊은 연구자 및 우수교직자의 발굴을 위해 마련된 신인치학술상은 상패와 상금 50만원이 전달됐다.

金明鎭교수는 77년 서울치대를 졸업, 서울대에서 구강외과학을 전공하고 올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77~80년 서울치대병원서 인턴, 레지던트과정을 수료한 후 83년 대위로 예편, 그해부터 서울치대에 재직했었다. 올해 32세.

金교수의 수상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인「家兎 下齒槽補綴 自家이식후 변성및 재생에 관한 실험적연구와 신경봉합법의 비교 연구」이다.

金교수는「이번의 수상을 학문개발에 정진하라는 소명으로 알아 양질의 치과의사 배출에 진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